

보도자료

2011년 10월 13일(목) 배포 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통신정책국 통신자원정책과 이재범 과장 (☎750-2570)
통신자원정책과 김희원 사무관 (☎750-2577) hwkim@kcc.go.kr

대표번호서비스 번호이동 10월 17일부터 시행

- 1588, 1544 등 기존 번호를 유지하면서 통신사 이동 가능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10월 17일부터 대표번호서비스 번호이동성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588, 1544와 같은 대표번호를 이용하는 가입자들은 기존 번호 그대로 통신사를 변경할 수 있게 된다.

※ 대표번호 서비스 : 1588-XXXX, 1544-XXXX와 같이 일반 시내전화 번호 대신 사용하는 8자리 번호로, 이용자들이 외우기 쉬워 주로 기업 콜센터나 프랜차이즈 업체 등에서 사용하고 있음

그동안 대표번호를 이용하는 기업들이 통신사를 변경하려면 이용하던 번호를 변경해야 했다. 대표번호를 지속적으로 홍보해 온 기업들은 통신사를 변경하려면 쓰던 번호를 바꿔야 했기 때문에 대표번호서비스 시장에서의 가입자 유치 경쟁은 실질적으로 제한되어 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대표번호 서비스의 번호이동 시행을 통해 대표번호 시장의 경쟁이 활성화되어 요금 인하와 서비스 품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 통신사별 대표번호 부여 및 시장점유율 현황

구분	KT	LGU+	SK브로드밴드	SK텔링크	온세텔레콤	KCT	SK텔레콤
대표번호 (국 번호)	1577 1588 1899	1544 1644 1661	1566 1600 1670	1599	1666 1688	1877	-
시장점유율 ('10년)	40%	17%	5%	5%	4%	- (11.9월 개시)	29% (무선발신)

끝.